

순천시 이상기온 선제 대응…과수 경쟁력 높인다

재배 구조 개선·결실 안정 품종 다양화 등 농촌진흥 시범사업 추진
다축재배·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등 5개 사업 … 28일까지 신청

순천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재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과수 분야 농촌진흥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배 기술 개선을 통해 과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개화기 저온, 여름철 폭염, 결실 불량, 일소 피해, 병해 발생 등 복합적인 피해가 지속되면서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재배 구조 개선과 기상 재해 대응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과수 재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상 재해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재배 구조 개선, 결실 안정 품종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진흥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시범 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다축재배 조성 시범(7000만원) ▲개화기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과수 저온피해 대응 약제 기술 시범(1500만원) ▲신소득 유망 과수의 결실 안정을 위한 플럼코트 인공수분용 쟁기류 지원사업(3000만원) ▲숙기 분산을 통한 안정 출하 기반 마련을 위한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1억원)

▲폭염·서리·조류 피해 등에 대응하는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1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시는 노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신기술 도입 의지가 강하고 사업 효과 분석이 가능한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나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기준 해당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8까지 신청하면 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 분야 농촌진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월등면 복숭아 농가에 설치된 Y자식사설.

건강 체조·영양 관리… 고흥군 ‘백세청춘 운동교실’ 호응

60곳에서 마을별 10회씩 운영
보건소 직원 등 참여 효과 높여

고흥군이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백세청춘 운동교실’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총 60개소에서 마을별 10회씩 진행되며,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읍·면의 운동 환경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을을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4일 과연면 석촌마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일에는 두원면 금산마을과 예회마을, 대서면 평촌마을, 동강면 죽림마을 등 4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강 체조, 요가,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영양·비만 관리 교육 ▲금연·절주 등 통합 건강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강사와 보건소 직원이 함께 참여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 노쇠 설문지와 혈압·혈당 등 기초 검진을 프로그램 전후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



고흥군이 관내 60곳에서 마을별로 10회씩 운영하고 있는 ‘백세청춘 운동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로 맞춤형 신체활동 제공과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돋는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

강증진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세청춘 운동교실은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상반기 32개소, 하반기 28개소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여수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 째걸음

4~5세 무상보육 등 정책 추진

여수시가 영아반 보육 아동 대상 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세 가지 주요 보육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책으로 기존 3명에서 2명 이하를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개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실무 활용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영상 기반 매뉴얼 자동 작성 ▲웍스 AI 맞춤형 비서 기능 활용 등 실무에 곧바로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정 주무관은 “AI는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신규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들의 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부모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전 직원 대상

AI 실무 활용 사례 교육

대·비대면 875명 참여

광양시가 지난 16일 시청 시민홀과 청내방송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실무 활용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대면 96명, 비대면 779명 등 총 875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가 아닌 행정안전부 ‘AI 챔피언 블루 등급’ 인증을 취득한 감동시대주 진단 정술현 주무관이 직접 진행했다.

기술 중심의 강의가 아닌 실제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활용 사례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교양에서는 ▲사진 기반 오류 진단 ▲노트북 LM을 활용한 법령·지침 지능형 검색 ▲안티그래비티, 키보드 등 AI IDE를 통한 반복업무 자동화 ▲

배우게 해주는 도구’라며 책이나 강의보다는 스티커, 유튜브 등의 SNS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신 AI 학습 정보를 모아보는 방법도 제시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구례군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일상 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군민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본소득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 즉시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구례군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마트, 식당은 물론 관내 하나로마트 등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있다.

여수시가 최근 산행·산책로에서 맷돼지를 마주 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특히,

특히,

여수시 관계자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은 예측이 불가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관찰 자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맷돼지 출몰 대비 시민 안전 관리 강화

방지단 운영하고 행동 요령 안내

여수시가 최근 산행·산책로에서 맷돼지를 마주 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겨울 번식기 맷돼지의 활동이 증가하고 서식지 내 먹이 부족으로 인해 도심 및 산책로 출몰이 늘어나는 시기로 맷돼지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 우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맷돼지 발견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 요령에는 ▲발견 시 절대 접근 및 자국 금지(나뭇가지 던지는 행위 등) ▲이른 아침·야간 산행 가급적 자제 및 단독 산행 자제 ▲주변 인지를 저해하는 행동을 삼가(산행 중 이어폰 착용) 등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은 예측이 불가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관찰 자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긴급 방역

곡성군이 관내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공통형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를 가동하고 긴급 방역 대응에 나섰다

군은 AI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대본을 즉시 구성하고,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 대응 체계에 즉각 돌입했다.

현재 발생 농가는 중심으로 출입 통제와 이동 제한 등 조동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과 가축 및 관련 차량 이동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공통형원(H5형)에 대해서는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군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현장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축산농가와 주민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은 향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을 면밀하게 관리하며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가금농가 피해 최소화에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공공 30개 사업 36명·지역 공동체 5개 12명 보성군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30일까지…중위소득 60% 이하

보성군이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하나로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직접 일자리사업(공공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 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30개 사업 36명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개 사업 12명을 각각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성 옥련선우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메타세콰이어길, 중수문 생태공원 등 관광지 정비와 보성향교, 별교생태공원 등 문화생활 공간 정비, 그리고 지역 내 환경정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보성군 청년센터와 BS 청춘마켓, 제암산자연휴양림에 대해 방진관에 청년 코디네이터를 모집하고, 별교버스터미널 청년도우미, 보

건소 청년 동행 매니저, 한국자박물관 청년 안내인(도슨트)을 모집하는 등 체육 구묘에서 청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 큰 특징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보성군민으로, 가구 기준중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면 18~49세 청년을 선별하는 사업에는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공고일(1월 19일) 기준 보성군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별 결과는 소득, 재산, 기타 자격요건 등을 종합 평가해 2월 20일 전후로 선별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공동체팀(061-850-5981)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